

‘뉴딜 일자리’ 가보니… 기저귀 갈고 설거지 등 허드렛일

(서울시 사업)

900억 들인 청년·경력단절자 취업 돋겠다는 사업, 부실 논란

“公告와 다른 일 시키고, 취업이나 창업과 무관한 단순업무 맡겨”
“할 일 없어 그냥 있다가 퇴근” 왜 뽑았는지 모르겠다는 참여자도

지난 2월 배순영(가명·53)씨는 서울시로부터 “뉴딜일자리 참여자로 선정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배씨는 뭘 듯이 기뻤다. 보건소에서 8년간 간호사로 근무하다 개인 사정으로 그만뒀던 배씨는 이번에 재취업으로 가는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첫 출근 하던 지난 3월 배씨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신생아 4명과 똥기저귀였다. 매일 오전 9시에 출근해 신생아들에게 밥을 먹이고 기저귀를 갈았다. 배씨는 “뉴딜일자리가 간호사 경력을 살리는 정검다리가 될 줄 알았는데 실망이 크다”고 말했다. 배씨와 함께 들어왔던 다른 참여자는 설거지, 청소, 분리수거 등 허드렛일을 하다 결국 지난 달 그만뒀다.

서울시가 청년과 경력 단절자들에게

사회 경험을 제공해 취업에 도움을 준다면 시작한 ‘뉴딜일자리 사업’ 일부가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딜일자리 사업에는 연간 예산 수백억원이 투입된다. 지난 2013년 첫해 265억원에서 갈수록 불어나 올해는 921억원이 책정됐다. 총 250개 사업에 5450명을 채용한다. 월 최대 215만원이 지급된다.

본지는 지난 5일과 13일 이성배 서울시의원(자유한국당·비례)과 함께 뉴딜 일자리 현장 6곳을 방문해 참가자 17명을 만났다. “공고와 다른 일을 시킨다” “취업이나 창업과 무관한 단순 업무를 맡긴다” 등 지적이 잇따랐다. 지난 2월부터 한 자치구의 위탁업무를 맡은 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지모(53)씨는 이달 내로 그

■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서울시가 청년과 경력단절자들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일자리 사업. 공공부문에서 업무 경험을 제공해 민간 일자리에 취업하도록 돋겠다는 취지에서 시작했다. 올해 총 921억원을 투입해 545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월 최대 215만원을 준다.

만두겠다고 했다. 지씨는 금융권에서 20년 가까이 일했다. 그는 “인생 2막을 꿈꾸며 지원했지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사실상 주어지는 업무가 없어 그냥 앉아 있다가 퇴근하는 수준”이라며 “이럴 거면 왜 뽑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취업 준비생 김모(26)씨는 “현장 업무를 의힐 줄 알았는데 홈페이지 관리와 같은 단순 업무를 하고 있다”며 “이 경력이 실제 취업을 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애초에 취업으로 연계되기 어려운 단

순 일자리도 있다. 공공화장실을 돌며 물

래카메라를 확인하는 여성안심보안관 사업이 대표적이다. 시에서는 “안전 관련 요원으로 취업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으나 사실상 단순 아르바이트라는 지적이다. 시 관계자는 “안심보안관 경력으로 전문 보안업체에 취업하는 것은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예산을 뉴딜일자리 사업이 아닌 여성가족담당관실 쪽으로 돌릴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맞벌이 부부의 자녀를 부모 대신 병원에 데려가는 일도 있다. 단순 근로라 정규직 취업과 연관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다.

시 관계자는 “점검 전담 매니저를 두고 연간 2회 사업장을 방문해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매니저들도 사업장 관리에 도움이 되지 않기는 마찬가지라고 뉴딜일자리 참여자들은 지적했다. 한 노숙인 지원단체에서 일하다 성희롱 위험을 느꼈다는 참가자는 “지난 4월 매니저가 방문했을 때 상황을 보고 했지만 어떤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사업자 간 이권 다툼이 불거진 성동구 성수수제화 기술교육장에서는 뉴딜일자리 교육생이 방치되고 있다. 서울시는 교육생들에게 월급 200만원을 주며 수제화 기술을 가르친다. 교육생들은 “지난해 10월 이후 강사들이 줄줄이 그만두고 있고 수업에 필요한 자재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며 “시에 수차례 이야기했으나 1년 가까이 문제가 해결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시에서는 “뉴딜일자리 참가자들의 취업률이 2013년 8.9%에서 지난해 51.6%로 늘었다”고 했다. 그러나 대학 졸업자들의 평균 취업률(2018)인 62.8%와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이성배 서울시의원은 “세금 수백억원을 투입했으면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돼야 한다”며 “시에서 관리 감독 의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문제가 드러난 사업장은 참가자 면담을 통해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해인 기자

朝鮮日報

2019년 08월 27일 화요일
A02면 종합

기저귀 갈아주기가 뉴딜 일자리?



서울시가 올해 사업비 921억원을 투입하는 일자리 정책이 있다. 청년과 경력 단절자들에게 공공 부문 업무

경험을 제공하는 ‘뉴딜 일자리 사업’이다. 그러나 본지가 현장에서 만난 참가자들은 “그냥 앉아 있다 퇴근하는 수준” “이럴 거면 왜 뽑았느냐”고 지적했다. 보건소에서 8년간 간호사로 일했던 참가자는 “기저귀 갈아주는 일만 하게 돼 실망이 크다”고 했다.

기사 A12면